

광주시, 2020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 추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770개 창출... 사회참여·소득지원 기대 총 35억9300만원 투입... 종합지원 빚고을 50+센터 설치·운영

광주광역시시는 조기은퇴나 퇴직 등으로 생애전환기를 맞은 장년층(45세~64세)들의 재취업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현재 광주시 전체 인구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장년층은 높은 교육수준과 숙련된 사회·경제활동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은퇴와 노후설계에 대한 정보, 일자리, 사회참여 등에 대한 욕구와 정책수요가 많음에도 청년·노인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광주시는 70세 전후까지 일자리

와 사회 참여를 희망하는 장년층들의 노동연령 인식 변화에 발맞춰 광주 특성에 맞는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과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등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소득지원을 목표로 '2020년 장년층 생애재설계지원계획'을 수립했다.

2020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의 주요 내용은 ▲일자리 및 사회참여 지원 ▲수요자 맞춤형 교육·훈련 강화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기반 내실화 등 3개 분야 10개 사업으로 총 35억9300만 원을 투입한다. 광주시는 장년층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 일자리 770개를 창출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2000개 이상의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기존의 '사회공헌활동 지원', '빚고을 50+일자리 지원', '직종별 취업 면접 주간 운영', '취·창업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이중 '빚고을 50+일자리' 사업은 중앙부처의 일자리 사업과 달리 우리시 정책 방향에 맞는 신규 일자리를 발굴해 운영하는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심야 시간 여성의 귀갓길 동행 및 안전 취약지역 순찰 활동 등 사회서비스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수요자 맞춤형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교육분야 과제로 은퇴한 장년층이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평생학습을

통한 제2의 인생설계 및 꾸준한 자기계발이 필요한 만큼 광주평생교육원, 노사발전재단 등 전문교육기관과 협업체 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을 추진하고 커리어개발 교육과정 등 인생재설계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기반 내실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특별교부세 3억원 등 총 6억원을 투입하여 일, 배움, 여가, 복지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지역 내 자원 발굴과 유관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장년층의 허브역할을 하게 될 빚고을 50+센터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행형 시 복지건강국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주된 일자리 퇴직 후에도 상당

기간 소득활동이 필요한데, 장년층의 사회·경제적 역할상실은 가정을 넘어 사회 문제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면서 "일자리가 장년층을 위한 최고의 복지이자 노후대책이라는 점을 감안해 장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생애재설계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퇴직전문인력의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청소년 학습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부모 심리상담 지원, 일자리 컨설팅 등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게 될 수행기관 4곳을 최종 확정하고 관련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신중년(50세~70세) 50명을 모집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사·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규진 기자

경제지표

| | | |
|------------|---|-----------------|
| 코스피 | ↑ | 1,744.45(+1.59) |
| 코스닥 | ↑ | 564.51(+4.13) |
| 원·달러·환율 | ↓ | 1,221.60(-0.20) |
| 금리(국고채 3년) | ↑ | 1.10(+3.77) |

광주시, 건설기술용역업자 5년 미만 기술인 가점 부여

청년 일자리 확대·효율성 개선

광주광역시시는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을 4월 1일부터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기준 개정은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평가기준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국토부 기준을 준용해 추진됐으며, 광주시는 자체 세부평가기준 개정을 위해 행정예고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일정금액 이상 건설기술용역을 입찰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참가자의 기술 능력, 관리 및 경영 상태 등을 종합 평가하고 용역업자가 성공적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건설기술용역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용역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근거를 신설해 젊은 기술인이 기술용역업계에서 경력·실적을 쌓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젊은 기술인의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모든 발주청의 실적이 등재되는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을 통해 업무 중복도를 검증하는 등 평가업무 절차가 효율적으로 개선된다.

이 밖에도 신용도 평가 시 감점기준 완화,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기간 축소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시 현행 평가기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용역업자'를 '용역사업자'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평가기준 제명 및 용어변경 등도 추진한다. /윤규진 기자

市, 상생선불카드 운영방식 개선

오늘부터 재충전 시 할인 적용, 잔액 환불 댄 할인지원액 정산

광주광역시시는 선불형 카드의 재충전 사용 등 광주 상생카드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4월1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광주상생카드는 발행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선불형이 재충전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1회용으로 사용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해 말부터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선불형을 재충전할 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스마트뱅킹, 인터넷뱅킹 등으로도 충전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용자 구매 및 사용편의는 물론 자원 절약 효과도 거두게 됐다.

더불어 선불카드를 6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는데, 이때 구매 시 액면가만큼 일괄 할인 받았던 금액 가운데 환불 신청 당시 사용액만큼 정산하여 환불 조치되도록 했다.

또 광주시는 최근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상생카드의 올해 발행 목표액을 당초 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3월 말까지 예정됐던 10% 특별할인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박두진 시 민생경제과장은 "사용자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광주상생카드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에도 기여하도록 발행규모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reddot award 2020 winner car design



현대기아차, 레드 닷 디자인상 수상 현대기아차는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Design Zentrum Nordhein Westfalen)가 주관하는 '2020 레드 닷 어워드(2020 Red Dot Award)'의 제품 디자인(Product Design) 분야에서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 '벡스(VEX)'와 기아차 유럽 전략형 모델 '엑시드(XCeed)'가 혁신 제품(Innovative Products) 부문과 자동차·모터사이클(Cars and Motorcycles) 부문을 각각 수상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현대차 제공

전남도, '코로나19'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속 지원

현장실사 생략·신속심사제 도입... 10일 이내 처리

전라남도도와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신속한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고 나섰다.

최근 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보증신청이 평상시 대비 5배 이상 폭증해 보증서 발급에 최대 8주까지 소요되는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전남신보는 '신속 심사제도'를 운영해 5천만 원까지 특례보

증 심사과정을 대폭 줄이고, 심사절차도 기존 8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 했다.

특히 다른 시도와 달리 모든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과감히 생략, 소상공인의 신속 지원을 위한 파격적인 방침도 세웠다. 또 전남신보는 보증업무 적체 해소를 위해 15명의 단기 계약직원을 채용하고, 보증 상담·접수 업무를 도내 8개 은행(농협, 하나, 우리, 광주, 신한, SC제일, 기업, 국민)으로 위탁을 확대해 은행에서

상담과 신청·접수가 가능토록 대책을 마련했다.

앞으로 전남신보는 보증심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돼 하루 평균 500건 이상 특례보증서 발급을 목표로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4월부터 10일 이내에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전남신보를 방문할 필요 없이 도내 8개 은행 영업점에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전남신보 누리집(www.jnsinb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맹환금 기자

광주시, 영락공원 3단계 종합개발 본격 추진

추모형 테마공원 및 봉안시설, 참배객 편의시설 등 조성

광주광역시시는 영락공원(제2시립묘지) 3단계 유보지에 장사시설을 확충하는 종합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기조성된 영락공원 1·2단계 사업과 연계한 이번 3단계 종합개발 계획수립을 통해 고품격의 장사시설을 구축하고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공간으로 장사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봉안시설, 참배객 편의시설 및 추모형 테마공원 조성 등을 포함한 종합개발 계획을 마련해 올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주민의견 수렴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망월묘지공원(제1시립묘지)·영락공원의 봉안당(추모관), 자연장 등을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근수 시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시민들이 자주 찾는 휴식공간이자 추모공간이 되도록 장사시설을 조성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맹환금 기자

기사제보 2580@jndomin.kr

문화관광의 중심지

기외 고장 영암!
문화관광 중심도시!

월출산국립공원/한국트롯가요센터/월출산 기찬랜드

평일 밤 한
일 상 속
남다른 여행

여행을 떠난다는 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